

“전북도 일방적 인사교류 중단해야”

진안군 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 갖고 성명서 발표... 전북도 문제해결 촉구

진안군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재선)은 1일 오전 11시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이재선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진안군은 전북지역에서 가장 많은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다.(전라북도 443.14ha 진안군 59.69ha 전북도 산림면적의 13.5%)



진안군 공무원노동조합은 1일 오전 11시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진안군 산림과장의 자리는 항상 전북도 사무관이 차지해왔다.

진안군의 녹지율은 총 17명(5급 1, 6급 2, 7급 6, 8급 6, 9급 2)인데 전북도에서 5급 과장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깥에 부서장으로의 승진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대가인 승진의 영광이 없다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껏 업무에 매진 할 것인가.

진안군은 전북도의 사무소인 듯 도청 인사교류로 내려오는 사무관이 7~8명 이던 시절도 있었다. 2020년은 3명중 2021년 현재는 2명을 유지하고 있다.

진안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전북도청의 일방적이고도 불합리한 인사교류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11월 전북도청 총무과 면담, 같은 해 12월 전직원 인사교류 반대서명서(500명)를 도지사 비서실에 전달하고 비서실장 면담을 추진해 왔으나 2020년 12월 면담 이후 현재까지 전화 한통도 전북도로 부터 받지 못했다.

또한 전공협(전북 13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부단체장 낙하산인사 저지 투쟁도 병행하고 있으나 전북도 인사부서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는 95%이상이 5급이상의 직위로 퇴직하지만 전북도 14개 시군은 90% 이상이 6급 이하 하위직으로 퇴직하고 있으며, 정원 대비 5급 사무관 이상 비율도 전북도는 20%가 넘지만 14개 시군은 평균 5%도 안 되고 있다. 직제와 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행태가 과연 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 이 같은 인사행태의 문제점을 기초

단체장이 인식하여 개선하려 해도 전북도의 부단체장과 사무관 낙하산인사에 거부할 경우 예산과 감사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도지사의 눈 밖에 나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일방적 인사교류를 거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진안군공무원노동조합과 전공협(13개시군)노동조합은 현재 진안군청에 남아있는 사무관 2명의 복귀와 일방적인 인사교류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도지사 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전북도의 문제 해결의 노력이 없다면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청원 월례조회

“태권도가 K-콘텐츠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

황인홍 무주군수가 태권도를 K-콘텐츠로 개발할 절대적인 호기리면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포상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황 군수는 1일 정동문화의 집에서 12월 청원 월례조회를 통한 현안 업무들을 공유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황 군수는 이날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고 있고 파생되는 효과가 실로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태권도를 성공시켜야 하는 무주군민들이라면 생각 없이 홍보해내거나 지나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황 군수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오락게임 산업, 그리고 OTT와 연계한 영화와 드라마까지 문화산업 전반으로 영역을 넓히는 유연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들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점이다”며 “태권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K-콘텐츠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 “연말연시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에 많은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행정의 솔선수범을 보이라”고 주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밖에 황 군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이후, 개인 간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늘어나면서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 환자 또한 늘고 있어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다”며 “추가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가 최선이다. 정부의 계획에 맞춰 추가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군수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운영 중에 있는 만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폭설에 대비한 제설 대책과 재난발생 단계별 대응 메뉴얼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역설했다.

이외에도 △겨울철 화재 예방 철저 △공직자강 확립(음주운전) △대 의회 업무 추진 철저 등을 주문하면서 6백여 공직자가 현장행정을 역동적으로 펼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기본형 공익 직불금 12월 초 지급 시작

진안군은 12월 초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규모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5,517농가, 100억 2000만원이다.

지난해 개편된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관련 17개 준수사항이 추가돼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는 전체 지급액의 10%를 감액 후 읍·면에서 최종 확정 후 지급 된다.

또한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경작규모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5,000㎡ 미만 경작, 소농농지 1만5,500㎡이하,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연속 3년 이상, 농의소득 4500만원 미만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1농가당 120만원 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농지를 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등 3개 지역으로 나뉘고, 3개 구간(2ha 이하, 2~6ha, 6~30ha)으로 구분해 1ha당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05만 원까지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사랑의 땀감 나눠 주기 사업 추진

진안군은 올해도 겨울이 다가오며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땀감 나눠 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매년 지속 추진 하고 있다.

이는 숲 가꾸기 및 산림 패트를 등 경관녹지 사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해 난방용 땀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기초생활 수급자 등으로 난방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따뜻한 온정도 함께 나눠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올해는 11개 읍·면에서 추천된 저소득 취약계층 30세대로 가정 당 4톤씩 총 120톤의 난방용 땀감을 대상 세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 선정

장수군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임시거주형 주거시설인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젊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거주 시설을 제공해 주변의 농지정보와 정착 여건

을 살피고, 텃밭을 가꾸면서 농작물 재배 기술과 영농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부지는 장수읍 두산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해 2023년 하반기 입주자를 목표로 20호 이상의 주택과 세대별 실습 농장 등 맞춤형 공간을 건립해 주거와 교육시설을 연계한

타운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군 인구유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정책사업을 발굴하고 귀농·귀촌인들이 장수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개선과 농촌생활 및 영농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마을니우스’ 우수상

무주군은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무주마을니우스’가 2021년 전북 마을공동체 우수 콘텐츠 공모전 에서 신문·잡지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전주시민 미디어센터 영시미, 전북민주 언론시민연합, 전북마을 미디어 공

동체 활성화 네트워크에서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라북도에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하는 단체와 공동체, 개인을 대상으로 영상, 라디오, 신문·잡지 3가지 부문에 걸쳐 심사가 진행됐다.

‘무주마을니우스’는 기성 언론이 갖

고 있는 무게감이나 신속성은 없지만 다른 곳에선 접할 수 없는 무주만의 콘텐츠와 무주지역 마을 이야기를 담아낸 점이 인정받았다.

특히 인물 탐구나 인물 인터뷰는 지역 주민을 만나는 과정에서 공동체 간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미디어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취지를 잘 담아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업재해·병해충 대응 우수사례 ‘대상’

무주군이 농업재해·병해충 대응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업진흥청이 주관한 2021년 농촌지도기관 농업재해 대응 분야 평가회에서 대상(농촌진흥청장)을 수상했다.

1일 경북 안동시에서 진행된 이번 평가회에서 2021년 농업재해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로써 농업재해대응, 농작물병해충 예방방제, 가축질병 차단방역 업무에 기여한 우수기관과 담당자를 선정했다.

특히 병해충 방제가 농가소득으로 직결되는 만큼 현장지도에 총력을 쏟는 등 발품을 팔아왔다. 군은 이상기상에 대비해 청정 반딧불이농산물 안

정 생산을 주제로 올해 1월 한파, 3월 이상기온, 4월 과수 개화기 서리피해, 8월 벼 도열병 발생 등 신속한 현장 점검을 펼쳤다. 이에 중앙 재해기관 연계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군은 과수 꽃가루 지원사업 및 안정생산을 위한 아미노산 공급과 함께 화상병 방제를 위한 약제 지원과 현장조사, 농가홍보 및 현장지원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무주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확대보급, 인삼 고온피해 종합기술 시범 사업 추진, 돌발해충 방제 지원, 예방활동에 주력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